



5월8일 남양주 봉선사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제11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에서는 시대의 큰 스승 운허 스님을 재조명한다.

# 운허 스님의 생애 음악으로 재조명

제11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5월 8일 봉선사 특설무대서

'조국 위해 독립 투쟁 봉일사로 피신 중에 /경전보고 발심하여 경승 스님 제자되셨네/ 율초 큰스님 문하에서 경학공부 정진하고/ 대장경 한글화의 대원력을 세우셨네...보살의 서늘한 달/ 허공중에 뗏노매라/중생의 믿는 마음/물과 같이 맑았으면 '교성곡 운허 큰스님' 중에서

음악회에서는 200여 명의 북부불교연합합창단과 국악인 박애리씨 등 출연해 멋진 화음을 보여줄 예정이다.

경기도북부불교사암연합회장 정수 스님(봉선사 주지)은 "본 예술제는 경기북부 지역 8개시와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등의 불교사암연합회 소속의 연합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참가해 마련한 음

독립운동가·대장경 한글화 선구자 '운허 스님' 화음으로

악화다.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독립운동가이자 대장경의 한글화의 선구자이신 운허 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 상상화 화합의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는 경기도민의 축제 한마당을 열고자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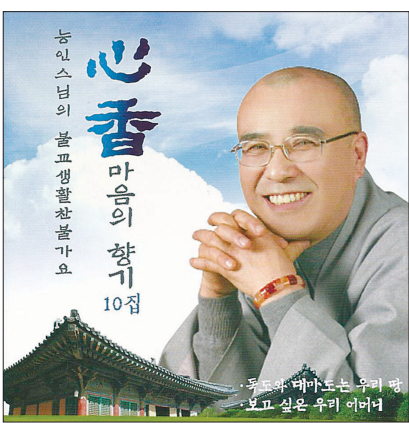
5월 8일 오후 6시 제1부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7시 제2부에서 본격적인 음악 예술제가 펼쳐진다. 제1막 '예불' (한글 칠정례, 지휘 최현우) 제2막 '운허 큰 스님' (지휘 박진성) 제3막 '부모은중송' (지휘 유문식) 등이 연주된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경기도북부불교연합합창단과 국악인 박애리, 김영우, 최수정, 박운선 등이 부모은중송을 멋진 화음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경기북부 음악예술제는 조영근 선생을 중심으로 의정부지역 불교연합합창단이 개최해오던 음악제를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4개시의 지휘자와 단장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지역을 매년 순회하는 형식의 음악회로 발전시켰다. 2005년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의정부시불교사암연합회와 (사)삼보불교음악협회 공동주최로 1회 공연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031)527-1956 정혜숙 기자

# 능인 스님 10집 '심향' 발표

장애인에게 희망 전하는 '꿈을 향하여' 등

능인 스님(행복사 주지)이 3년 만에 불교 생활 찬불가요 10집 '심향'을 발표했다. 10집까지 전곡을 모두 직접 작사, 작곡, 기획, 제작, 노래해온 스님은 민요를 비롯해서 트로트, 랩, 레게, 발라드 등 모든 장르의 곡들을 두루 들려준다. '보고 싶은 우리 부처님'은 가곡에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으며 발라드곡 '꿈을 향하여'는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다. '사회복지법인 광림사 연화원과 인연을

맺고 수화사랑 음악회에 참석을 하며 각각 시·각 장애인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저 넓은 세상을 향하여 꿈과 용기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 땅'은 서산대사가 승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친 호국정신을 기리며 제작된 곡이다. "젊은이들이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경쾌한 슬로우 레게 풍의 반주에 응원가로도



능인 스님의 10집 '심향'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이 곡을 통해 독도와 대마도를 향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기를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 과도한 자기에 버릴 때 참 자아 완성

스피어리그 형제의 '타임 패러독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스피어리그 형제가 감독한 '타임 패러독스(원제 Predestination)'를 보고나면 기시감이 든다. 이는 아마도 어느 지점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와 '나비효과(The Butterfly Effect)'와 유사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 영화는 일어난 범죄를 막기 위해 과거 범죄가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발상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빗지고 있고, 주인공이 어긋난 인연의 고리를 풀기 위해 시간을 역행한다는 발상은 '나비효과'에 빗지고 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시간의 속성은 불가역적이다.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시간이고, 인생도 그러한 시간의 불가역성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시간여행을 꿈꿔왔다. 이번에 소개하는 '타임 패러독스'도 타임머신 여행을 주제로 다룬 작품 중 하나이다. 줄거리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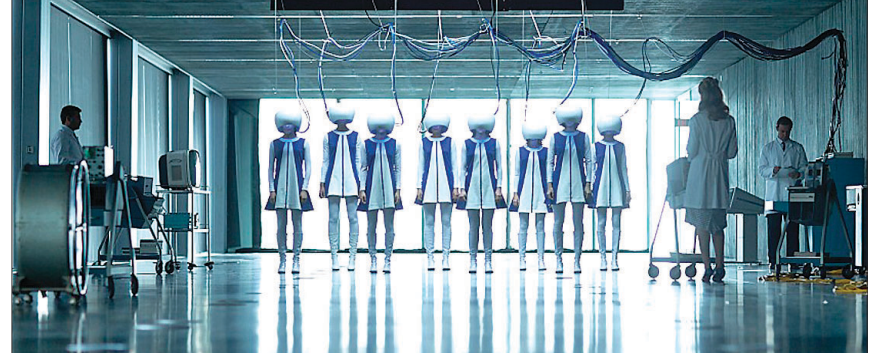
뉴욕을 초토화시키는 '피플'이라는 폭파범을 잡기 위해 범죄예방부는 '템포럴'이라는 요원을 시간여행 현장에 투입시킨다. 템포럴 요원은 피플 폭파범을 막으려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다. 템포럴 요원은 미래로 돌아가 얼굴 이식수술을 한다. 이식수술을 마친 템포럴 요원(에단 호크)은 마지막 임무를 위해 1970년으로 간다. 뉴욕의 한 바에 템포럴 요원은 미혼모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컬럼리스트 '존' (사라 스누크)을 만난다. 존은 템포럴 요원에게 자신이 여자였다는 사실을 들려준다. 고아원 출신인 '제인'은 고독한 삶을 살다가 클리블랜드 대학에서 한 남자를 만난 뒤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 남자는 하룻밤의 사랑을 끝으로 사라진다.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딸을 낳고서 제인은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기관을 모두 갖고 있었으나 제왕절개 시 과다출혈과 자궁을 드러내서 남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딸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템포럴 요원은 존에게 묻는다. "당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 사내를,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는가?"

존은 템포럴 요원의 제의를 수락하고 시간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제인이 만난 운명적인 사랑의 남자는 다름 아닌 존 자신이었다. 계속해서 영화의 주인공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여행을 떠난다. 그 과정에서 제인이 낳은 아이가 시간여행을 통해 고아원에 버려져 성장한 뒤 제인이 된다는 사실과 존에게 화상을 입힌 이가 템포럴 요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니까, 제인과 존과 템포럴 요원과 피플은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시간여행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삶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것이다. 이는 의상대사의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을 떠올리게 한다.

이 영화가 불교적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유는 제인과 존과 템포럴 요원과 피플이라는 순차적이면서 동시에 순환적이고, 한 사람의 삶이면서 동시에 네 사람의 삶인 이야기가 대단히 연기적(혹은 인과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초전법륜 당시 연기법을 설하면서 '갈대다발의 비유'를 들었다. 갈



스피어리그 형제의 '타임 패러독스'는 어긋난 인연의 고리를 풀기 위해 시간을 역행하는 이가기를 담고 있다.

심리적 시간 직선적 아닌 순환적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시간여행 의상대사 '일즉다 다즉일' 떠올려

대다발의 갈대들은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외마로 서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고 설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인과 존과 템포럴 요원과 피플이라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주인공들의 관계도 갈대다발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영화 속 주인공이 과거 혹은 미래의 자신을 만났을 때 그를 죽여야 하는 당위적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때문에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식 30송>에 따르면, 사람이 번뇌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만(我慢), 아취(我取), 아견(我見), 아애(我愛) 때문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 번뇌는 과도한 자기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많은 사람이 과도한 자기에 때문에 일을 그르치곤 한다. 기실, 불법(佛法)에 의거해 보면, 이 세상에 자기할 것도, 자기의 소유할 것도 없다.

그런 까닭에 '타임 패러독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심리적인 시간은 직선적이지 않고 순환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에 버릴 때 비로소 참 자아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타임 패러독스'라는 한국 제목도 제법 잘 지은 제목이 아닌가 싶다. 유용오 작가

2559년 석가탄신기념  
**능인계향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계향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에 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한정특가로 공급됩니다.  
**1차분 전량 매진!**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2차분 순차 발송중입니다.**

■ 한정특가 : 15,000원  
 (초파일 이후 정상이 30,000원으로 환원되며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될 수 있습니다.)

능인계향 051)746-6818 / 02)3663-6777  
 www.nihwa.com 홈페이지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친견해서 차 한잔만 마셔도 말기암, 병의, 난치병 등 일체 고통들이 사라지는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강의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강의교재는 화엄경수행센터의 회주인 진귀 수행자가 출판한 화엄경 책으로 강의하며 「전국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 등 일체 종교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 잔의 친견만 합니다.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고통이 사라진 사례자들의 동영상 및 사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 수행센터 문의 ☎ 1899-9532